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기공식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칠 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중미 지역 회장인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는 2005년 10월 30일 일요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의 신축을 위해 첫 삽을 떴다.

존스 장로는 교리와 성약 109편 8절을 인용하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파나마 회원들의 의무는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전을 공부하고 가정의 밤을 가지며 꾸준히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칠십인인 호세 에이 가르시아 장로는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관해 말했다. 파나마에서 두 번째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던 도밍고 에스트리비 형제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파나마에 지부가 하나뿐이던 시절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지금은 일곱 개의 스테이크, 여덟 개의 지방부에 39,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

2002년 8월 23일에 발표된 이 성전은 파나마 운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파나마 파나마시티 스테이크 카르데나스 와드의 기존 집회소가 부분적으로 자리를 차지한 부지에 건축될 예정이다.

전날 허리케인 베타가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해안에 상륙했지만, 기공식 당일에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여 행사를 위해 아름다운 하늘이 열렸다. ■

새로운 임무를 위해 준비하는 신임 성전 회장들

35 명의 신임 성전 회장들과 부인들이 새로운 임무에 대한 준비 차 2005년 10월 18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례 성전 회장 훈련 모임에 참석했다. 다음의 성전 회장들과 메이트론들이 봉사를 시작했다. ■



온타리오 토론토 성전

네덜란드 헤이그

마커스 레인더스와 코넬리아 제이 레인더스

노스다코타 비스마르크

로버트 엘 홀리오크와 보니 비 홀리오크

독일 프라이베르크

만프레드 에이치 슈체와 헬가 디 슈체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브이 케네스 두틸과 베티 지 두틸

멕시코 멕시코시티

네드 비 루에세와 조앤 에스 루에세

몬테나 빌링스

로버트 엠 윌크스와 에스텔라 더블류 윌크스

브라질 캄피나스

아드에마르 다미아니와 왈키리아 비 다미아니

사모아 아피아

수아우파피아 페아와 탈라로아 엠 페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앨비 알 에번즈와 릭 지 에번즈

솔트레이크

엠 리처드 워커와 캐슬린 에이치 워커

스위스 베른

웨인 엠 헨콕과 코니 에이 헨콕

스페인 마드리드

에프 버튼 하워드와 캐롤린 에이치 하워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안헬 제이 솔레와 에디스 레오노르 솔레

아이다호 보이시

해롤드 지 힐람과 캐롤 알 힐람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존 에이치 그로버그와 진 에스 그로버그

애리조나 스노우플레이크

래리 비 브루어와 라돈 브루어

에콰도르 과야킬

로버트 비 매리어트와 매리엔 에프 매리어트

오克拉호마 오克拉호마시티

에이치 엘드리지 길레스피와 버지니아 엘 길레스피

온타리오 토론토

해롤드 에프 워커와 모린 지 워커

워싱턴 디시

에프 멜빈 해먼드와 보니 에스 해먼드

유타 로간

데니스 이 시먼즈와 캐롤린 티 시먼즈

유타 마운트뎀파노고스

로렌스 에스 클라크와 캐롤 더블류 클라크

유타 옥든

고든 티 와츠와 코니 더블류 와츠

유타 조던 리버

로버트 엘 백맨과 재닛 더블류 백맨

유타 버날

노먼 지 앵거스와 로우 앤 엠 앵거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스티븐 비 오브슨과 디시 오브슨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데이비드 이 소렌슨과 벨라 에이 소렌슨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다윈 비 크리스티슨과 샌드라 엘 크리스티슨

콜롬비아 보고타 로렌스 티 달 이세와 아이린 엠 달
 텍사스 샌안토니오
 에이 레이 오프와 소냐 에스 오프
 파라과이 아순시온 리차드 알 조지와 지닌 조지
 피지 수바 리차드 터블류 웰즈와 헬렌 비 웰즈

하와이 코나 얼 이 벨로리아와 오드리 엘 벨로리아
 호주 시드니
 프랭크 에이치 휴스턴과 맥신 제이 휴스턴
 호주 애들레이드 찰스 파슨스와 앤 엘 파슨즈

선지자 조셉의 생애를 다룬 새로운 조셉 스미스 영화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제 일회장단의 의견, 역사적으로 정확한 대본과 세트, 생생한 촬영 기술, 영성을 지닌 배우들과 제작진, 이 모든 것들이 현재 템플 스퀘어의 레저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새로운 영화의 제작에 투입되었다.

The Testaments of One Fold and

One Shepherd(성약, 한 무리와 한 목자)와 *Legacy*(유산)의 뒤를 이은 새로운 영화는 또한 12월에 교회 사적지 및 성전 경내에 있는 일부 방문자 센터에서 상영을 시작했다.

Joseph Smith The Prophet of the Restoration(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은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선지자 조셉 탄생 200주년에 맞추어 2005년 12월 17일 개봉했다.

선지자의 생애

상영 시간이 65분인 이 영화는 버몬트 주에서 보낸 조셉 스미스의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하여 38세를 일기로 일리노이 주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서술한다. 이 영화는 회원들과 그 외 사람들이 인격자 조셉 스미스를 알도록 도와 준다고 영화 제작자인 론 먼스 형제는 말했다.

시청각부 집행 책임자 보조인 칠십인 정원회의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는 선지자 조셉의 인격, 고

난 및 성취를 묘사하는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선지자 조셉에 관해 더 심도 있게 배우도록 해서 그들이 약한 간증이 아닌 강한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돋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에 대해 알 때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관점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장엄함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생활과 그가 견뎌야 했던 시련에 대해 보여 주고자 합니다.”라고 시청각부 관리 책임자인 라일 샴오 형제는 말했다.

먼스 형제는 조셉 스미스의 모범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셉이 역경에 대처하고 인생의 사명을 성취했던 방법은 모든 삶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조셉은 참으로 헌신적이었지만 항상 공평한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먼스 형제는 말했다. “그의 삶에는 처음부터 많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진리의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역

선지자 역을 맡을 연기자를 찾기 위해 성전 합당성을 지닌 회원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물색한 끝에, 최근의 교회 영화 *The Restoration*(회복)에서 성인 조셉 역을 맡았던 네이던 미첼이 선지자 조셉 역에 다시 선정되었다. 두 명의 다른 배우가 일곱 살과 십대의 조셉 역을 맡았다.

역을 배정받은 후 미첼 형제는 찬송가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장)에 있는 “세상은 요셉을 다시 알리

사진 촬영: 조 린크



네이던 미첼이 최근 개봉된 영화 *Joseph Smith The Prophet of the Restoration*에서 조셉 스미스를 연기하고 있다.

라(Millions shall know 'Brother Joseph' again)"라는 가사가 떠올랐다.

“저는 이 영화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선지자 조셉을 알도록 하는 방편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 자신이 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미첼 형제는 말했다.

그는 책과 조셉의 일지 및 문서를 읽음으로써, 또한 브리검 영 대학교의 교회 역사 교수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조셉 스미스의 인격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선지자 조셉에 관한 제 느낌은 아주 특별해서 그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관객들도 그러한 깨달음이나 계시를 얻어 조셉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구주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의 간증을 정말

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화 제작

먼스 형제는 주님께서 이 영화의 제작을 염두에 두셨다고 말하며, 때맞춰 눈이 내렸다거나 비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장면이 비로 인해 향상되었던 일 등 여러 가지 예를 언급했다.

촬영 과정 내내 영이 함께 했다고 먼스 형제는 말했다. 그는 주님께서 배우들과 제작진들의 재능을 강화해 주신 것이 명백히 보였던 순간들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먼스 형제는 수백 명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작에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의 감독인 그레이 쿡은 주요 시나리오 작가였다. 티 시 크리스텐슨 형제가 공동 감독 겸 촬영 감독이었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 교회

작곡가 메릴 켄슨과 알렌 카드 또한 그들의 재능을 합쳐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먼스 형제는 전했다.

영화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LDS 모션 픽처스튜디오(LDS Motion Picture Studio)에서 촬영했으며, 일리노이 주 나부와 뉴욕 주에 있는 교회 사적지, 캐나다에 있는 역사 마을, 미시간 주 미시시피 강 부근에서 야외 촬영을 했다.

영화는 2006년에 다섯 개 언어로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영화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www.lds.org/events에서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다. 전화로는 1-866-LDS-TIKS (1-866-537-8457, 미국 내 무료 전화) 또는 570-0080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지역 시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



촬영은 유타의 LDS 모션 픽처 스튜디오(LDS Motion Picture Studio) 및 교회의 여러 사적지에서 야외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허리케인 율마, 신기록 세우다

2005년 10월 중순, 북미 및 중미 대륙의 일부가 몇 차례 닥친 전 대미문의 기록적인 2005년 대서양 허리케인의 타격에서 복구되고 있을 때, 기록적인 세 번째의 5등급 허리케인이 서부 대서양과 동부 카리브해 지역을 완전히 휩쓸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스탠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회원들과 율마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의 초기 필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

육지에 상륙하면서 3등급으로 약화된 허리케인 율마는 36시간 이상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거세게 몰아쳤다. 그 후 폭풍우는 쿠바 서부를 지나 끝으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멕시코와 플로리다의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안전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멕시코에서는 통신망 상태가 나

빠져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연락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플로리다와 멕시코에서 교회의 구호 노력은 허리케인 율마가 지나간 후 더욱 증가되었다. 지역 복지 위원회는 올랜도에 있는 감독의 창고에서 제공된 식품, 식수 및 기타 비상 공급품의 분배를 감독했다. 교회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트럭 몇 대 분량의 비상 구호품을 구입해 칸쿤 및 코수멜 지역에서 회원들과 그 외 사람들에게 배부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이 입을 피해로 인해 물품의 운송이 지연되었다. 스테이크 회장들은 이들 지역에서의 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지역에 있는 회원들과 이웃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멕시코에서는 수백 명의 회원 가족들이

심한 피해로 인해 집을 옮겨야 했다.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약 20여 회원 가족들의 집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칸쿤에서는 여러 채의 교회 집회소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멕시코에서는 100개 이상의 임시 대피소를 세워 약 22,000명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큰 홍수가 칸쿤, 플라야델카르멘 및 코수멜을 덮쳤다. 칸쿤 인구의 약 30~40퍼센트가 폭풍우로 인해 거주지를 훼손당했으며, 칸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된 채 지내야 할 처지이다.

같은 주말에 허리케인 율마가 쿠바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폭우와 홍수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폭풍의 진행 경로에 있던 6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했다. 2005년 7월 허리케인 데니스가 지나갔던 쿠바의 동부 지역 또한 율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폭풍과 홍수 피해는 플로리다 키즈 제

사진 촬영: 멕시코 남 지역 공보 사무실 제공



허리케인 율마가 멕시코 칸쿤에 있는 이 집회소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도뿐만 아니라 남부 플로리다 반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많은 집회소가 폭풍과 비로 인해 손상되었다. 남부 플로리다에 있는 여러 집회소의 조경과 위성 수신기가 손상되었다. 350만 명 이상의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해 물이 1.52미터까지 불어났다. 플로리다에서는 폭풍과 관련하여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삶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가운데 스테이크 회장들은 재난이 지나간 현재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며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

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번역과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교회 자료가 제공되는 언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표시이다.(교리와 성약 112:1) 5개 언어가 추가되어, 통역자들은 2005년 10월 연차 대회를 80 개 언어로 제공했다. 물

문경 번역은 77개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아호나는 5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회 번역과는 추가 언어로 교회 모임을 통역하고 자료를 번역하는 데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번역과는 글로 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번역, 그리고 말씀을 다른 언어로 전하는 통역,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한다.

통역자와 번역자의 역할

번역팀의 일원을 선정할 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번역과 책임자인 제프리 시 베이슨 형제는 교회 잡지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번역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사라고 느끼며, 그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교리와 성약 9편 9절을 인용했다. “내게서 네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성스러운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 이 성구는 번역과의 지침이라고 베이슨 형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번역 기

술이다. 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번역자 역할이 나은지 검토자 역할이 나은지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받는다. 번역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도착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구사한다.

번역사와 마찬가지로 통역사도 도착어와 영어 두 언어 모두에 정통해야 한다. 대부분의 통역사들이 도착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반면, 영어가 모국어인데 선교 사업 때 도착어를 배운 사람도 있다.

언어 자료의 처리

교회 자료를 어떤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에 관한 지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주어진다. 2005년 11월 현재, 교회는 190개 언어를 승인했으며 그 중 104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번역과는 범세계적 번역 계획(Worldwide Translation Plan)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계획은 몇 가지 부분 또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언어를 몇 명의 회원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단계에서 교회 자료가 제작된다.

범세계적 번역 계획에 따라 특정 언어로 자료들을 받기 위한 요청은 지역 회장단이 한다. “회장단은 지역의 언어적 필요 사항을 살펴보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추천을 합니다.”라고 베이슨 형제는 말했다.

교회 자료의 번역은 도착어에 익숙한 여러 사람들을 활용한 여러 차례의 검토를 요하는 긴 과정이다. 한 사람 이상이 번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와 언어 사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경전이 번역될 경우, 검토 과정은 더욱 확대된다. 경전 번역에 있어서도 지역 회장단의 요청 및 번역 승인이라는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진다.



사모아 회원들은 통역 팀의 노력 덕분에 모국어로 연차 대회 모임을 시청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경전 번역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인도 하에 이루어집니다.”라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우리가 작업해서 사도들께 간단히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책임 맡는 것입니다.”

경전 번역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번역과는 번역 과정에 걸쳐 여러 차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총관리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출판된 기타 교회 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영어로 된 원문이 번역되고, 그 후 솔트레이크시티 또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번역자 및 검토자 팀에서 번역이 완성될 때까지 의견을 교환하며 검토하는 작업이 계속된다. 도착어 팀은 일반적으로 빠듯한 마감일에 맞추어 작업한다.

베이스 형제는 그 과정이 단순히 영어를 도착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번역은 일종의 예술인 한편, 매우 세부적인 과정이며 많은 기술, 그리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언어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을 바꾸는 것이 문제

가 아닙니다. 의미, 감정, 문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쇄된 자료들 외에도 교회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프로그램 중 많은 자료들도 번역되고 있다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이러한 자료에는 도움말 화면, 유의 사항 및 양식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사이트의 번역은 번역 작업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다.

통역에 도움을 주는 기술

일부 모임을 위해서는 번역된 자료가 사전에 준비된다. 그러나 연사가 준비된 자료에서 벗어나거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통역자가 동시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통역자들이 모국에서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방송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 통역자가 있다고 합시다.”라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고속 통신 회선은 그 통역자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모임을 통역하도

록 해 주며, 통역은 위성을 통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전송되어 영상과 단지 1초의 시차를 두고 다른 방에 있는 회중들에게 동시에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통역자로 이루어진 팀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통역한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통역자들은 컨퍼런스 센터 내에 있는 부스에서 작업하며, 전세계에 있는 대회 참석자들은 모국어로 모임을 들을 수 있다.

앞으로 퍼져 나가는 복음의 기쁜 소식

베이스 형제는 번역과가 관여하는 일이 교리와 성약에 묘사되어 있다고 말했다. “무릇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그들 위에 내리는 보혜사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에 성임된 자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0:11)

“우리는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돕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특권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그렇게 되도록 도우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여러 언어로 퍼져 나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의 동반과 더불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교회 회원들에게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합니다.”라고 제일회장단 제 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영은 언어보다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Heirs to the Kingdom of God,” *Ensign*, 1995년 7월호, 63쪽) ■



물문경은 현재 7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2006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선지자를 따르라”를 참조한다.

1. 간단한 의상이나 표지를 사용하여 다섯 명의 어린이가 모세, 침례 요한, 아빈아다이, 조셉 스미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역을 연기하도록 한다. 그들에게 다음 말씀 중 하나를 읽게 하고, 다른 어린이들은 그들이 각각 어느 선지자를 나타내는지 알아맞혀 보게 한다. 정확히 맞다면, “주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나요?”라고 묻는다. 모세: “나는 구약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백성을 속박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내 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아빈아다이: “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노아 왕에게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조셉 스미스: “나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경전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

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라는 성구를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의 계획에서 중심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영감을 받아 전세계 곳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린이들이 선지자 한 명을 알아맞힐 때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선지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가르친다고 간증한다.

2. 현재의 제일회장단 및 사도들의 사진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이 그들의 모습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 또는 www.lds.org에 있음) 각 사진 뒷면에 그 사람에 관한 한두 문장을 적는다. (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교회의 다른 어느 지도자보다도 많은 성전을 헌납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36세에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출판업계에서 일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변호사로 일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뉴잉글랜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새들을 실물같이 조각하고 색칠했다. 엘 톰 페리 장로는 노던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는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에 주에 있는 기업들에서 일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심장 전문의였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 및 유타 주 대법원 판사였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사업가였으며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이글 스카우트(역주: 21개 이상의 공로 기장을 받은 최우수 보이 스카우트)이다. 그는 대학에서 미식 축구 선수였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핵 과학자였다. 그는 아르헨티나 북 선교부를 감리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제트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는 영국 런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 또한 칠레에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대학 교수 및 리스 대학 [현재는 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가족이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조종사이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대학 교수 및 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었다.) 몇몇 어린이들에게 사진을 들고 그 지도자의 성명과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게 한다. 사진으로 알아맞히기 게임을 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59~160쪽 참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권세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간증한다. 교리와 성약 84편 36절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연차 대회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귀 기울이도록 격려한다.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이명우 자매 가족

“저번에 일요일에 교회 다녀와서 집에 있는데 승수가 “할머니,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재미있고 좋았어.”라고 해줬더니 꺄꺄 웃더라고.”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대화도 없었겠죠.”

고부 간인 이명우 자매와 김명옥 자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연신 웃음을 자아낸다. 두 자매가 나누는 이야기 속 주인공은 이 집의 막내 아들, 막내 손자 한승수 형제다. 초등학교일 때 친구 손에 이끌려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 할머니와 어머니 손을 잡고 갈 수 있게 된 것은 작년 여름. 한 형제가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자마자 어머니 이명우 자매가, 몇 달 후에 할머니 김명옥 자매도 “손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인삼차를 앞에 두고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이라는 끈으로 매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명우 자매는 3년 전에 아들이 ‘선교 사업’이란 것을 선언했을 때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난감했죠. 다른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갑자기 선교 사업이란 것을 한다니... 그래도 저도 당시에 성당에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 아니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선교사 훈련원 입소를 몇 주 앞 둔 한 형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어머니에게 종교 교육원에 같이 다니자고 제안했다. 의외로 쉽게 따라 나선 이명우 자매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러 간 후에도 2년 동안 계속 종교 교육원에 다녔다고 한다.

“승수가 선교 사업을 가기 전부터 승수랑 친한 저희 와드 자매님이 종교 교육원에 계속 같이 가자고 연락하고, 데리러 오시고 하셨어요.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아셔야죠.” 하면서 2년 동안 매주 그렇게 하시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제가 침례 받고 교회 나오는 데 그 자매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른 종교에서 이 교회에 대해 안 좋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대체 왜 그런가 하는 궁금증을 풀고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경을 왜 있고 조셉 스미스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종교 교육원 내용이 저한테 쉽지 않았어요. 와드 자매님이 데리러 오시니 계속 가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수가 귀환하기 석 달 전부터는 중랑 와드에 일요일 모임을 참석하면서 더 공부했죠.”

조금씩 조금씩 이명우 자매의 마음이 움직이고 방향이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때, 선교 사업을 마친 아들 한 형제가 귀환했고, 한 달 뒤인 6월 29일 모자는 하얀 침례복을 차려 입고 행복한 침례식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권유를 받아들인 할머니의 침례식도 몇 달 후에 손자 한 형제의 손을 빌려 이루어졌다.

복음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승수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을 보면, 집에서는 어리게만 봤는데 언제 저렇게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승수를 보면 마음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자란 것 같고, 점점 커져가는 것이 느껴지죠.” 복음이 선사한 첫 번째 선물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고, 이것은 가족이 한번 더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있었다.

“승수가 저를 닮아 집에서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 오면 같이 교회 이야기, 회원들 이야기 하면서 더 많이 대화를 하니깐 집안 분위기도 편해지고 좋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생각이 다 다른 것인데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



이명우 자매의 침례식 날 가족이 함께했다. 맨 왼쪽부터 한승수 형제의 할머니 김명옥 자매, 한승수 형제, 어머니 이명우 자매, 아버지 장승택 형제

부산 선교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전 10시 30분.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그 시간에 선교사들은 현관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를 한다. 아멘 소리와 함께 고개를 든 이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온 마음을 다해 외친다.

“인 바이트 올 소울스 언투 크라이스트! 부산 선교부 파이팅! (*Invite All Souls Unto Christ-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함*)” **고요한 아침 하늘에, 맑은 선교사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으며 매일을 시작하는 부산 선교부를 소개한다.**

송평중 회장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이 새 봄을 재촉하는 아름다운 절기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한국이 주님께 헌납된 지 50년이 되어 기념 행사를 했던 것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50년 역사를 시작하는 올해, 저희 부산 선교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부산 선교부 지역에는 약 천삼백팔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교회 회원 수와 거의 같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주님께 인도한다면, 교회의 회원 수는 두 배가 됩니다.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한다!” 저희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과 저는 올해에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하며 모든 회원들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성실한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음을 간증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선교사들이 세상에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됨을 또한 간증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OYM하는 선교사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다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이 매일 아침 목청껏 소리치는 구호는 곧 부산 선교부와 선교사들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기 위해 OYM(open your mouth-입을 열다)이라는 것을 한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회복된 복음을 나누고자 말을 거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잠깐 급한 일이 있을 때 탄 택시 안에서, 녹색불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 보도에 잠깐 멈추었을 때도 짧은 몇 분, 몇 초 동안 선교사들은 어김없이 영어 회화 진단지를 건네고, 물문경과 구원의 계획을 소개한다. 선교사들은 주로 이 OYM을 통하여 복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가족 영어 회화를 하고자 하는 가족을 찾고 있다. 송평중 회장은 "우리 선교사들이 실제로 100명에게 OYM하면 그 중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두 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선교부 회장 보조로 봉사하는 노성훈 장로는 "저희는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숙소를 나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저희가 지나는 어느 곳이나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다는 신앙과 소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입을 엽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준비된 그분의 자녀들에게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라며 20개월 동안 매일 해온 OYM에 대한 강증을 전했다.

부산 선교부의 시작

한국 땅에 두 번째로 세워진 선교부인 부산 선교부는 1975년 7월 1일에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선교 사업의 깃발

을 꽂았다. 당시 95명의 선교사들은 광주, 대구, 부산, 부산 서, 전주 지방부와 제주 전도소를 관할했는데, 11년 뒤 대전 선교부가 설립되면서 관할 지역은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로 축소되었고, 현재 선교부가 관할하는 조직은 대구, 마산,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제주 지방부로 발전하였다.

부산 선교부 2세 선교사들

부산 선교부에는 총 111명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이곳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이른바 '2세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 중 마산 스테이크 마산, 창원 와드에서 봉사하는 강혜선 자매 선교사와 차지아 자매 선교사는 부모님과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모녀 선교사 - 강혜선 자매

부녀 선교사 - 차지아 자매

"저희 부모님들은 70년대에 이곳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신 선배 선교사들이십니다. 부모님과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하다보니 저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었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서 젊은 시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구에서 봉사할 때 만난 어떤 자매님은 저희 강혜선 자매의 어머니가 가르치시고 차지아 자매의 아버지께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지금 저희가 하는 작은 노력들이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한번 더 다짐하게 됩니다."



왼쪽부터 차지아 자매 선교사, 강혜선 자매 선교사

경상도 땅에 부는 변화의 바람-회원 선교 사업

부산 선교부의 자랑거리를 묻자, 송평중 회장은 서슴없이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초석인 부산 지역 회원들은 선교 사업에 대한 강한 소망과 관심이 있습니다.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을 보며, 진정한 부산 선교부는 이곳 성도 여러분이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선교사와 회원이 하나가 되어 선교 사업에 전념하는 여러 지역 중, 천년 고도 경주와 가장 뜨거운 도시로 불리는 대구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행복한 변화를 소개한다.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본 저희를 항상 본 사람처럼 반겨 주시는 것이 낯설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해맑은 선교사들의 입으로 전해들은 가족의 행복을 얻고자 교회에 간 장재숙 자매는 회원들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난 1월 8일에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고민할 때 복음 원리반에서 회원들이 자신들이 개종할 때 겪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느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안에 큰 마음을 가진 "가족 같은" 분위기의 경주 지부는 지난 6개월 사이 성찬식 참석수가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

"워낙 개종자가 많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시면 저희는 소중하게 반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성찬식에 스무 명 정도 참석했는데 요즘은 평균 40명 정도의 회원이 오십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신앙이 커지면서 공과 내용이나 회원들이 주고 받는 대화도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지부회장단, 보조조직 회장단도 조직이 되어서 모두들

표준 건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더 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갈 때 점점 더 기쁜 마음이 커진다는 박기호 회장의 말 속에서 경주 지부의 발전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청남 회장 이섭우 형제, 스테이크 청년 회장 홍미희 자매, 세미나리 교사 차지혜 자매, 청년 회장단 최은희 자매, 전부경 자매, 복음 원리반 교사 성민경 자매, 차대환 감독, 선교책임자 프랭크 형제, 장로정원회장 장승태 형제, 상호부조회장단 최민실 자매, 스틸 장로, 크리스텐슨 장로, 정수연 자매 선교사, 소렌슨 자매 선교사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모이는 이들은 와드 협의 평의회가 아니라 선교 협의 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인원이다. 각 보조조직 역원들은 모두 와드 선교사들. 이들과 신권 지도자, 전임 선교사들은 상인 와드 선교 사업을 위해 하나가 되어 일한다.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찬송가 소리가 교회를 가득 메우면서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다. 모임의 맨 처음 순서는 항상 선교책임자의 영적인 메시지다. “야곱서 4:13. 우리가 살아가

면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성신과 함께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성신과 함께하도록 우리 와드 선교사들은 방문하고, 안식일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와드에 침례가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와드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프랭크 형제의 간증에 뒤이어 와드 선교사들은 새로운 회원들의 현황을 보고한다. 선교 책임자의 입에서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지난 주에 출석했는지, 근황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와 친한지,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 누가 도울 것인지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진다.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똑같이 “음...”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변함이 없다.

상인 와드 성찬식에 참석하는 평균 구도자 10명, 지난 해 침례받은 31명 중 회원이 소개한 경우 14명, 올 해 1월에 침례받은 사람은 한 가족을 포함하여 7명, 모든 신회원 토론은 와드 선교사들이, 구도자 복음 토론은 저녁 늦게라도 회원과 함께, 계명에 따라 생활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구도자들은 감독단이 방문, 거의 모든 구도자들이 받는 회원들의 식

사 초대, 토요일에는 감독단이 구도자와 함께 교회에서 농구와 탁구를, 매주 초등학교 활동과 청소년 상호향상모임, 스카우트 활동 운영 ...

이 모든 일을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고 이끄는 차대환 감독은 가까이 참여하는 회원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선교 사업을 위해 회원들에게 특별한 목표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One by One(2년 전에 부산 선교부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펼쳤던 회원 선교 사업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길전도와 선교사 음악회로 구성.)에서 회원들이 직접 길전도를 해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부탁하는 복음 토론에 참여하면서 직접 경험해서 얻은 자신감과 기쁨이 회원들을 도운 것 같습니다. 선교 책임자가 영적으로 모임을 잘 준비하고 돕기도 했고요. 화요일에 교회에 들어서면 항상 무엇인가 가득한 느낌입니다.”

“지도자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단합하여 이 사업에 함께 전념할 때 하늘이 움직일 것을 믿으십시오.”(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



침례식에 모인 경주 지부 회원들.



상인 와드 선교 협의 모임.

경향 신문, 술 마시지 않는 직장인 배동철 회장을 보도하다

세상은 배동철 회장의 이름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18년 장수한 ‘비주류’ 홍보맨 배동철씨.”

현재 서울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배동철 회장의 기사가 2006년 1월 23일자 경향신문 매거진 엑스 1면에 소개되었다. ‘대한민국 기업체 홍보맨이 어떻게 술 한 방울 안마시고 장수할 수 있을까? 술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주류보다 경쟁력있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인 배동철을 주목했다.

이 기사는 술자리에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꺾어야 했던 배 회장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주) 옥션에서 7년째 홍보이사로 재직하며 2004년에 마케팅 대상을 받는 등 인정된 경쟁력의 근원을 “소신껏 신념대로 사는 것”으로 보도했다. 2남 2녀를 둔 배동철 회장과 아내 박순병 자매는 현재 가족과 함께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 참석한다.

처치 뉴스, 한국인 개척자 박병규 형제 보도하다

2005년 12월 10일 처치 뉴스 14면에 “한국인 개척자, 신앙의 친구들을 따름”이란 제목으로 박병규 형제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한국 교회 개척자들이라 불리우는 김호직, 이호남 형제들과 함께 1950년대 개종하여 광주 스테이크 초대 회장과 부산 선교부 회장, 최초의 한국인 서울 성전 회장, 교회 교육 기구 지역 책임자, 지역 대표, 한국 선교사 훈련원 회장 등을 역임한 박병규 형제를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 교회 개척자로서 지금의 한국 교회 발전을 감사해하는 박 형제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교회에 들어왔을 당시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이 땅에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신앙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박병규 형제는 현재 수원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고, 아내 이영지 자매 사이에 아들 삼형제와 열 명의 손자녀를 두었다.



2006년 1월 23일 경향신문 매거진 엑스 1면. 여러 개의 술잔 사이에서 물병을 들고 웃는 배동철 회장의 사진이 인상적이다.



2005년 12월 10일 처치뉴스 14면에 게재된 박병규 형제의 기사. 번역된 기사 전문은 교회 한국어 홈페이지 지역 단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리산 -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

한국 전역에서 모인 청년 지도자들과 종교 교육원 교사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고원용 장로는 2006년 1월 20일과 21일, 속리산 아람 호텔에서 제3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을 했다. 각 스테이크 / 지방부 독신 의장과 학생회 임원 70여 명은 첫날, 중부 종교교육원 학생회에서 준비한 친해지기 활동과 무도회에 참여하였는데, 모임 직후에 마련한 평가 모임에서 실제로 효과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튿날에는 독신 회원들이 주로 참석하는 모임인 무도회, 종교교육원 수업, 청년 대회의 현재 모습과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와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감리자로서 모임에 함께했던 고원용 장로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독신 회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라며 시작한 맺음 말씀에서 교회의 발전이 독신 회원들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며 “전신갑주를 입고 올 해를 계명에 따르는 해로 삼으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전국에서 온 청년 지도자들에게 환영 말하는 고원용 장로.

한라산 - 부산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백록담이 보이는 화구륜 코스까지 오를 수 있는 한라산 동쪽의 초입 성판악 휴게소 앞. 쌀쌀한 날씨였지만 옛된 얼굴들에는 하나같이 기대감과 긴장감이 뜨겁게 교차하고 있었다. “어디서 왔습니까?” 백 명이 넘는 청소년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등산객이 물었다. “부산에서요!”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한라산 등반은 그렇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시작되었다.

등반을 시작한 지 두 시간이 흘렀을까. 처음의 우렁찬 목소리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허벅지까지 빠지도록 쌓인 눈과 추위를 막으려 입은 두꺼운 옷이 자꾸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저 많은 학

생들이 정상까지 다녀오는 건 무리”라고 얘기하던 성판악 대피소 직원들과 버스 기사들의 말이 자꾸 역원들

의 머릿 속에서 맴돌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청남, 청녀들을 두려웠다. 아이들의 배낭을 세 개나 짊어지고, 건강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조기 하산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역원들의 이마엔 땀이 마를 새가 없었다. 정상과 가까워질수록 거센 바람은 눈보라를 뿌려댔다. 한 발 한 발 비록 느린 걸음이었지만 등반을 시작하고 여섯 시간이 지나서야 한라산은 부산에서 온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정상을 밟도록 허락했다. 머리카락에 고드름이 맺히고 추위에 옷음조차 지을 수 없었지만 스스로 자랑스럽고 기뻐서 모두의 눈빛은 쌓인 눈보다 더 환한 빛을 내었다.

“처음엔 대회에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회비도 비싸고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 참석한 지금 저는 무척 큰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한라산 등반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자연을 만드신 주님의 위대하심은 물론이고 힘들게 등반을 해서 결국엔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승영에 이르고자 하는 각오도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눈보라 치는 한라산을 바라봤을 때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청소년들의 겨울 안에 어떤 행복과 힘이 있었는지 송성아 자매의 간증이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전 건우 기자)



한라산에 쌓인 눈보다 더 환한 웃음을 짓는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



한라산 정상에서 선 부산 스테이크 청남, 청녀들

교회, 한국에 휠체어 600대 기증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회는 한국 지역에 휠체어 600대를 기증했다. 그 중 500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한 적십자에 기증되었다. 지난 1월 23일 대한적십자사 본부에서는 북아시아 지역회장단 제2보좌 고원용 장로와 한국 관리 본부, 한국 공보 위원회와 적십자사 관련 임원들이 모여 휠체어 전달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고원용 장로는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라며 교회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취지와 현황을 설명했다. 나머지 휠체어 100대는 각 스테이크/지방부의 요청에 따라 배분되어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와 회원들에게 기증되었다.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과 신권 지도자들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에 담양에 위치한 ‘창평 우리 병원’에 휠체어 다섯 대를 기증했다.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이 운영하는 이 병원은 노인 치매와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이 날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은 휠체어를 전달하고 환우

들의 쾌유를 비는 마술쇼, 합창, 합주, 한국 무용 등 아름다운 공연으로 봉사했다. 병원장인 정한 형제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최진 기자, 허용환 형제 기사 제공)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휠체어 기증식. 왼쪽부터 성기환 재난구조팀장, 공보위원회 여론 주도층 관계 보조 허용환 형제, 정혜숙 재난구호 봉사본부장, 공보 선교사 판즈웬스 부부, 이김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고원용 장로, 공보위원회 위원장 최석구 형제, 한국 관리 본부 대표 최윤환 형제, 공보위원회 자문 위원 조현석 형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보물찾기-기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간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그분의 사랑과 도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 청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 주세요. 청년, 청년 회장단과 부모님들께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문: 기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간증

사진: 밝은 표정으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

기한: 3월 25일까지

청년 대회에서 만난 부부 이야기

지금 함께 지내는 영원한 동반자를 청년 대회를 통해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부를 보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

다면 여러분 지역의 리아호나 기자들이 직접 도와 드립니다.

부문: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와 간증

사진: 가족 사진 1장, 청년 대회 사진 1장

기한: 4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

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14명/해외 2명

서울 북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영어 캠프

서울 북 스테이크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산 힐스 청소년 수련원에서 동계 청소년 영어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최근 영어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착안하여 서울 북 스테이크에서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모임이었는데, 구도자 54명을 포함한 청년, 청년 138명은 선교사들과 청소년 역원들,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셀러스 서울 선교부 회장, 김미남 형제, 로버트 할리 형제, 한민근 형제 등 여러 초빙 강사의 세미나와 선교사들이 함께한 Experience English(12개 종류의 활동을 각 조별로 돌아가며 체험한 프로그램), 장기자랑, 체육 활동, 영어 연극 발표 등 다채로운 활동을 즐기며 영어에 대한 더 큰 재미와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김미남 형제가 고정 출연하는 SBS 라디오 '이숙영의 파워 FM'에 영어 캠프 현장이 생중계되어 청소년 네 명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이숙희 기자)



구동희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대전 선교부



윤애란 자매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서울 선교부



금선자 자매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대전 선교부



정진아 자매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서울 선교부



김성봉 장로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대전 선교부



정태영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류성면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대전 선교부



최미영 자매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서울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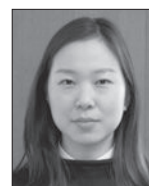
문진영 장로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서울 선교부



최보람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대전 선교부



박기연 자매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대전 선교부



한경아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부산 선교부



변정희 자매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대전 선교부



배상재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매사추세츠
보스톤 선교부



신정인 자매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서울 선교부



오민환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뉴욕 남 선교부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제3회 광주 스테이크 예술제 및 합창제
- 광주 종교교육원
세미나리 퀴즈 대회 및 졸업식
- 서울 서 종교교육원
세미나리 퀴즈 대회
- 제주 지방부
김종균 성전 회장단과 함께하는 노년의 모임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감독: 홍세일(전임: 윤성봉)